

분단 70년의 남북 과학기술: 새로운 도약을 꿈꾸자

글 : 김근배 (rootkgb@jbnu.ac.kr)
전북대 과학학과 교수

올해는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해다. 광복과 동시에 남북의 분단이 시작되었으니 말이다. 우리에게 광복은 희망을 떠올리게 한다면 분단은 진한 아픔을 안겨주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의 현대사는 환희와 고통이 양날의 칼처럼 공존하는 역사인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는 없을까? 코페르니쿠스의 대전회(大轉回)처럼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동안 남과 북은 서로 등지고 다른 길을 걸어왔다. 과학기술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 모습은 아주 상이하다. 과학기술의 수준만이 아니라 방향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남한이 글로벌 과학기술을 향해 달려왔다면 북한은 독특한 주체 과학기술을 고수해오고 있다. 언뜻 보면 남과 북의 과학기술은 공통의 기반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 과학기술에서 유사성보다는 차이점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남과 북은 다른 의미에서 과학기술 위기를 겪고 있다. 남한은 더 높은 선진 수준으로의 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점점 더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에 샌드위치화되고 있는 상태다. 추격형 과학기술 발전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북한은 여전히 세계적 과학기술 흐름으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다. 현대적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임계점을 확보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주체형 과학기술 발전이 지닌 고립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저마다 과학기술 전진이나 후퇴냐의 중차대한 기로(crossroad)에 서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과학기술 위기를 토마스 쿤(Thomas S. Kuhn)이 말했듯이 어떻게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한국은 과학기술 변창의 시기를 세 번 맞이한 적이 있었다. 첫 번째는 통일신라 때의 불교문화와 결합한 과학기술, 두 번째는 세종대의 유교정신과 연계된 과학기술, 세 번째

는 현대시기의 물질문명과 밀착된 과학기술이다. 물론 현대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게 진행중이다. 이러한 과학기술 융성기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은 과학기술 시스템의 완비, 글로벌 과학기술 교류, 국가적 에너지와 과학기술의 결합 등이다. 즉, 과학기술이 거대한 비약을 이루려면 국운까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에게 북한의 과학기술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 하나는 남과 북은 세계사적으로 온갖 과학기술의 다채로운 전시장이다. 남한의 과학기술이 보편성과 국제화에서 남다른 장점을 지녔다면 북한의 과학기술은 지역성과 대중화에서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남북 과학기술의 통합은 다양성과 확장성의 측면에서 남다른 자산이 될 수 있으며 다른 나라들의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그 발전을 모색하는 데도 유익하다. 다음으로 우리가 미국과 일본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 등지로 과학기술이 전방위적으로 뻗어나갈 광대한 다른 루트가 생기게 된다. 글로벌 과학기술 네트워크를 가로막고 있던 절반의 장벽이 해소되어 새롭게 떠오르는 범아시아 과학기술 허브의 위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 끝으로 남북의 통일은 과학기술에서 새로운 시너지를 분출할 국가적 대기운(大氣運)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체는 뚜렷하지 않을지라도 그 무형의 파장은 매우 강력하고 광범위하다. 과학기술을 향한 거침없는 열정과 도전이 그로부터 용솨음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의 과학기술은 부분적인 개선 혹은 보완에 머물러서는 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열어젖힐 창조적 대전환이 필요한 때다. 우리의 과학문명은 한반도를 넘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고 몽골, 러시아 등지로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시점에 서있다. 말하자면, 21세기 동서서점(東勢西漸)의 허브로서 신실크로드의 개척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남북 과학기술의 통일은 그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초기지가 되리라 본다. 이로부터 한반도-아시아 과학문명 로드(Korea-Asian Sciencivilization Road)는 그 출구가 비로소 활짝 열릴 전망이다.

